

# 대 언 론 호 소 문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오리산업은 예기치 않은 AI 발생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본의아니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국민여러분께 죄송스런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리업계 종사자들은 지금 AI로 인해 생계까지 위협 받을 만큼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 언론사에서는 계속해서 혐오성 장면을 자료화면으로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도경쟁과열로 공중파 방송의 간판 뉴스 프로그램에서 잘못된 사실을 보도하는 우를 범하면서도 시정조치 하지 않고 있어 가뜩이나 AI로 인해 고통 받는 우리 오리산업 종사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언론사의 사명인 만큼 AI와 관련된 상황 보도는 불가피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극적인 보도로 화제를 삼으려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회는 아래와 같이 언론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반복적 언론보도 자제를 촉구합니다.** 현재 AI의 심신고가 접수되면 보도하고, 확진되면 또다시 반복 보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소비량은 급격히 하락하게 됩니다.

신고는 단지 신고일 뿐입니다. 지금과 같이 신고건에 대한 보도를 계속하여 소비가 급락하게 되면 농가에서 출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신고를 기피하게 되고 결국 질병의 확산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질병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더 확대시키는 지름

길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추측성 및 오보 자제를 촉구합니다.** 며칠 전 살처분에 동원된 사병에 AI 감염이 의심된다는 보도와 함께 여러 가지 억측성 기사들이 난무하고, 심지어 확실치 않음에도 헤드라인에 「AI 감염」이라며 확정지어 오보한 언론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정확한 검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억측성 및 오보 기사를 앞 다투어 보도하게 되면 국민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동시에 오리사육농가에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주게 되는데 이것이 과연 방송이 걸어가는 정도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혐오·자극적 자료화면의 제공 중단을 촉구합니다.** AI가 발생될 때마다 언론사에서는 끊임없이 살처분 장면 등을 여과 없이 보도하였고, 본회와 오리업 종사자들은 매번 시정조치를 요청해 왔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AI 발생시 살처분 장면 대신 오리·닭 요리를 먹는 장면 등으로 대체하여 제공하는 등 언론보도를 최대한 자제하면서 가금소비시장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AI가 발생하게 되면 언론사마다 경쟁식의 보도전쟁으로 오리를 땅에 묻는 장면이나 개가 오리 사체의 일부를 물고 다니는 모습 등 더 자극적이고 더 혐오적인 장면을 자료화면으로 제공하여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소비욕구를 급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송보도 상의 문제점을 시정해 주시어, 상처입고 피해받는 우리 오리농가들이 더는 피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살피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 회원 일동

유관기관 : 대한양계협회, 한국계육협회, 한국계란유통협회, 치킨외식산업협회